■ 업그레이드 me 신문 경제기사 제대로 읽기

꾸준히 읽어라, 흐름 보이고 돈된다

"금리가 오름 추세니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 "미국에서 부동산 대출 부실이 급증했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가 부진해져 우리나라 수출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이런 전망은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 마다 차이는 있으나, 경제기사를 관심을 갖고 꾸준히 읽다 보면 대개 누구나 경제를 해석하는 시각이 길러져 경제 흐름을 예측하는 눈이 생긴다. 경제 현상도 사회현상의 하나고 사회현상은 대개 원인·결과가 있게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한다면 경제를 어렵지 않게 내다볼 수 있다는 말이다.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동아일보사)의 저자 곽해선(경제교육연구소장)씨가 추천한 경제기사 읽는 법을 간추린다.

각종 매체에서 연일 쏟아지는 경제 정보를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틈나는 대로 신문의 경제뉴스를 꼼꼼히 챙겨 읽는 것이 좋다. 경제뉴스를 자주 접하면 자연스레 경제를 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톱뉴스를 주목하자=신문이 1면 맨 위에 싣는 기사, TV나 라디오 방송 정규뉴스에서 맨 처음 전하는 소식을 톱뉴스(top news) 또는 머리기사(headline news)라고 말한다.

톱뉴스는 사람으로 치면 얼굴과 같다. 톱뉴스를 보면 사람의 얼굴 표정을 읽듯 그날의 경제, 정치, 사회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는 신문의 모든 지면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경제감각을 기르려면 머리기사 중 경제문제를 다룬 기사를 골라 읽으면 된다. 그 뉴스는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때가 많다.

◇연재기사 첫 회분을 놓치지 말라=독자가 첫 회분을 기사를 보고 이후 해당 시리즈를 계속 읽을 생각을 접는다면 연재물은 김이 빠져 버린다. 그래서 연재물 첫 회 기사는 특별히 공을 들이고, 앞으로 연재할 경제 이슈의 의의와 문제점을 집약해 소개한다. 언론은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에 얽히거나, 영향이 많은 사안일 경우 특별하게 해설을 붙인다.

그런 까닭에 경제기사 연재물 첫 회는 최근 경제 흐름에서 자주 다뤄지거나 새로 화제가 되는 이슈,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손쉽게 파악할 때 유용하다.

바빠서 자세히 읽을 시간이 없다면 스크랩하거나 캡처해 두었다가 나중에라도 꼼꼼히 읽어보자. 혹 잘 모르는 내용, 용어가 나오더라도 전체를 모두 읽는 게 중요하다.

◇주식은 투자 않더라도 보자=주식시세·시황은 매일 경제기사에 빠지지 않는다. 주식투자자는 반드시 읽지만, 주식과 이해관계 없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게 다반사다.

> 톱뉴스 그날의 경제 한눈에
>
> 연재기사 첫 회분은 반드시
>
> 투자 않더라도 시황 꼼꼼히
>
> 숫자 두려워 말고 지표 활용

그러나 경제 감각을 키우려면 주식을 들여다 봐야한다. 주가 변동, 주식시장의 흐름은 거울처럼 민감하게 경제·경기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굳이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모의 투자' 방식을 통해 주식에 들어갈 수 있다. 마치 주식을 산 것처럼 하나의 종목을 정해 시세를 보는 것이다. 아무 종목이나 하나 골라 시세를 따라가다 보면 경기동향, 경제계 사건, 신제품 정보 등에 익숙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숫자가 많은 기사 두려워 말라=경제기사는 숫자로 된 경제지표가 많이 나와 '숫자 공포증'이 있는 사람을 움츠러들게 한다. 숫자가 여럿 나오는 경제기사를 읽을 땐 한 두 개 숫자만 주목하고 나머지 숫자는 그냥 넘기면 된다. 이렇게 기억한 숫자를 일상생활에서 경제 이야기가 나올 때면 의식적으로 써먹어 보면 자연스럽게 경제 지표를 활용하는 감각이 붙는다. 식견도 따른다.

신문은 내용이 중요하거나 복잡한 경제뉴스를 전할 때 으레 해설기사를 함께 싣는다. 해설기사는 친절하게 독자에게 설명하는 기사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

◇신문에는 버릴 정보 없다=인사 이동(인물란·동정) 기사를 주목하자는 말이다. 신문에는 기업이나 관공서의 인사이동을 다루는 기사가 빠짐없이 등장한다. 인사 이동란을 계속 읽으면 주요 공·사기업의 내부 동정을 어렵풋이 읽어낼 수 있다. 그런 기사는 경제면, 때론 인물 동정란에도 등장한다.

정석에서 벗어난 인사가 이뤄졌다면 그 회사 내부에 '어떤 일'이 있다고 보면 된다. 좌천된 사람은 개인의 문제일 수 있지만, 조직의 문제일 수도 있다. 해당 업무의 축소 또는 사업 확대를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내용은 나중에 실체를 드러내 경제 분야 톱뉴스가 되기도 한다. 내가 주식을 산 기업에서 이런 인사가 이뤄지면, 즉시 더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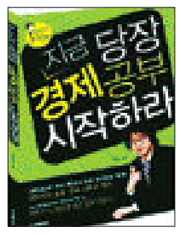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읽으면 도움 되는 경제 입문 가이드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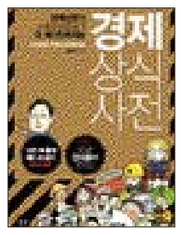
경제를 체계적으로 접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맞는 책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난해한 숫자들과 용어들로 채워진 책을 선택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무엇보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여진 책을 고르는 게 좋다.

◇경제학 콘서트=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경제 원리를 쉽게 알려주는 동시에 경제학적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알려주는 경제학 안내서다.

스타벅스 커피나 슈퍼마켓, 교통체증 등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의 사례를 통해 희소성, 내부정보, 효율성, 시장의 힘, 게임 이론 같은 경제학의 중요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준다. 본문에서는 재미있는 일러스트를 적절히 활용하여 지루할 틈 없이 유쾌하게 읽을 수 있도록 편집했다. 〈팀 하포드·웅진지식하우스·1만3천원〉



◇지금 당장 경제공부 시작하라=경제원론에 풍부한 경제 사례를 엮어 만든 현장 밀착형 경제 입문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한국적 사례를 바탕으로 경제지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떤 기조에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경제정책의 기본 맥락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최진기·한빛비즈·1만8천500원〉



◇경제 상식사전=최신 경제이슈를 엄선하여 재기 넘치는 삽화와 도표로 술술 읽히게끔 구성한 책. 가볍게 읽히면서도 기초를 확실히 다져주는 경제 교양서다.

'30초 용어복습', '경제 상식 자가진단' 등 코너가 들어 있어 경제 초보뿐 아니라 입시나 취업, 승진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들이 다양한 경제 상식을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된다. 별책부록으로 '알짜! 경제용어 300선'을 제공한다. 〈김민구·길벗·1만2천800원〉

◇똑똑한 돈=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왜 생기는지, 앞으로 정부나 중앙은행의 정책에 의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각 시기, 특히 지금과 같은 디플레이션 시기에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려준다.

저자들은 지난 시기 잘못된 금융 시스템으로 인해 빚(신용)으로 부풀려진 경제가 디플레이션을 통해 제자리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 디플레이션이 최소 2012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한다.

〈이명로·한빛비즈·1만5천800원〉

◇경제학 비타민=흔히 경제학은 일부 계층만 읽는 어렵고 딱딱한 분야라고 느껴진다. 이 책은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 경제학을 술술 재미있게 읽어내려가고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외국의 복잡한 이론을 쓴 책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 맞는 친근하고 토속적인 경제학 이야기다. 저자는 우리가 매일 겪는 일상에서 소재를 뽑아와 누가 읽어도 이해하기 쉬운 책이 되도록 구성했다. 나아가 어려운 수식이나 통계 대신 저자의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익히 알려진 사실에서 이야기를 풀어감으로써 재미와 흥미를 배가시켰다.

〈한순구·한국경제신문·1만2천원〉

'경제감각 기르기' 금융기관 교육 사이트 큰 도움

경제를 읽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경제교육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표적인 사이트는 한국은행 경제교육 홈페이지(www.bokeducation.or.kr)이다. 여기에는 금융 경제에 대한 기초 개념과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이 체계적으로 제시돼 있다. 기초적인 경제용어 풀이 등 초등학생 부터 일반인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애니매이션 동영상 강의도 이뤄진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e-book '금융생활 길라잡이'를 참조하는 것도 좋다. 금융생활 길라잡이에는 장기생활설계, 금융상품 고르는 요령, 금융상품의 종류, 금융상품과 세금, 예금자 보호제도 등 금융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내용들이 수록돼 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화폐·경제교육-금융생활 정보'를 클릭하거나 경제교육 홈페이지(www.bokeducation.or.kr) '대학생/일반인 경제세계-경제학습-경제도우미', 전자도서관(dl.bok.or.kr) '한은자료-발간자료-단행본-기타 단행본'에 접속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길라잡이·금융교실(edu.fss.or.kr)'은 수준별로 콘텐츠가 나뉘어 있어 자신에게 적합한 내용을 쉽게 찾아 학습할 수 있다. 플래시 애니메이션과 동영상 등의 콘텐츠가 마련된 '사이버 금융학교'에서는 평소 어렵게 느껴지는 금융 용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을 올려놓으면 관리자로부터 답을 받을 수도 있다.

한국거래소(www.krx.co.kr) 정보센터에는 알기 쉬운 증권선물시장, 투자상식, 증권용어 사전 등 주식 관련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